

치참한 재난이 일어날 때 하나님은 어디계신가?

When is God When Tragedy Strikes?

“어찌서 하나님이 이런일을 허락하셨을까?” 언제고 치참한 재난이 일어나면 이러한 질문이 그 재난을 당한 분의 가족들과 친구들의 마음에 종 종 들어 옵니다. 어떤 사람의 아이가 자동차 사고로 죽으면,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죽였습니다,” 하기가 사람으로써는 너무나 소름이 끼칠 정도로 끔찍 하고 무자비한 말입니다. 그럼으로 완곡어(euphemistically) 범으로 돌려서 말하기를 이아이의 이러한 죽음을 하나님이 “허락” 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말의 다른점을 술리적으로 구별할수 있습니까? 우리는 구별할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구별할수 없을 것아라고 믿습니다. 왜냐 하면, 만약 하나님께서 막을수 있는 일 이 있는데 막지 않고 그대신 그 일 을 허락 하셨다면 그 재난의 책임이 하나님께도 있다는 뜻이 되기 때문입니다.

어찌서 이 점에 대하여 “하나님의 호흠, 곧 그의 말씀”으로 가서 하나님께서 손수 말씀하시게 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가 한 작가으로써 경건한 사람들을 감동시켜서 그의 결함력으로 기록된 계서로 그가 누구이며, 그가 어떠한 하나님이며, 그리고 그가 애초에 사람을 자기의 아이디어로 창조했기 때문에,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짓는다는 것을 잘 알려 주십니다. 성경에서 말하기는 사탄이 현재 죽음의 세력을 잡았다고 하는데 그말이 곧 죽음은 결국 그가 원인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다시말하자면, 마귀가 직접하거나, 마귀의 지배를 받아서 하는데, 이러한 일을 살인하는 악귀가 사람을 통해서 살인하게 하거나, 혹은 그가 직접 세상에다 헤아릴수 없는 질병을 퍼뜨림으로, 혹은 파괴적인 날씨로, 혹은 무수한 “사고”들로 사람들을 죽입니다.

히브리서 2:14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속하였으매 그도(예수님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자 곧 마귀를 없이하시며...

예를 들어서, 당신이 빌리 와 조 라는 두 친구와 같이 식당에 앉아 음식을 먹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몽둥이를 들고 살그머니 당신뒤로 와서 당신을 후려 칠때 빌리가 보고도 아무말 않고 내버려 두었다고 합시다. 당신은 의식을 찾고난 다음에, 당신을 때린사람을 원망하는 동시에 또한 그것을 보고도 내버려 둔 빌리도 똑같이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식으로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비참한 재난을 막을수 있는데 막지 않고 그것을 “허락”해 주신다면, 이러한 하나님을 누가 진실로 사랑할수 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사들과 사람에게 참으로 자유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1서), 하셨고 참 사랑은 상대방에게 자유 안에서 서로 사랑을 주고 받게 합니다. 그럼으로 하나님이 악을 “허락” 한다거나 혹은 “허가” 해 주심으로 인해서 참 선과 사랑의 반응을 받을수 없습니다 왜냐 하면 이깃은 폭력이기 때문이죠. 만약 하나님 뜻의 정 반대적인 일이 생길때는 그 순간에 그가 자기의 본질을 떠나서 그일을 막을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이룰수가 있을 까요? 이점에 대하여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세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비록 현재 지배하는 선과 악 사이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전쟁에서 하나님이 가장 강력한 분이지만, 그의 정당한 본질 때문에 자기의 만만찮은 적, 곧 마귀에게도 올바르게 대해야 합니다. 둘째는, 하나님은 누구든지 개인적 자유의 뜻을 폭력으로 강탈할수 없습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정의가 그로 하여금 사람들에게 그들의 불순종의 결과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이점에 대하여 좀더 자세히 공부한 책 "Is God in Control?"을 읽어 보세요]

하나님이 항상 악을 막을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말 뜻을 죽여 버리는 것으려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1]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말은 하나에 문단, 성경에서 난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생각에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다스리므로 모든게 다 하나님의 책임인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대수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은 "전능"하신 자라고 배웠는데 그 뜻은 모든 권능은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 그러나 모든 권능이 하나님에게만 있지 않다는 것이 분명한 것은 마귀도 가진 권능이 많기 때문입니다. 대수의 그리스도인이 사용하는 문단 "전능하신 하나님"하면 그들생각에 그 뜻이 하나님의 권세가 가장 높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다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대로 하시는 줄로 믿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도 하나님의 권세가 가장 높은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만, 그의 말씀에 무엇이든지 아무 때고 자기가 하시고자 원하시는 일을 항상 하시지 못하는 것을 보여 줍니다. 그의 말씀에 자기가 무엇을 하실수 있고 무엇을 하실수 없다는 것이 확실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우리 모두 "기쁘다구주 오셨네" 하고 아주 즐겁게 이노래를 부르는데도 불구하고 잠깐 눈을 돌려서 신문을 보거나 혹은 텔레비전 뉴스를 들어보면 이 세상을 예수님이 다스리지 않는다 하는 것이 버젓하게 드러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세상이 아주 엉망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천국을 잃어버린 것이 틀림 없습니다. 이 세상은 아직도 주님의 지배 아래 있지 않다 하는 이 사실이 틀림없다는 것을 성경 말씀에서 무수한 구절들로 아주 쉽게 알려 줍니다. [3]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15:24-26

(24)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25)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아래 둘 때까지 불가불 왕 노릇하시리니 (26)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윗 구절 말씀대로 아직도 어떤 "지배권," 어떤 "권력," 그리고 어떤 "능력" 이 주님의 발아래 복종하 지 않고 있는것이 뻔합니다. 한거를 더 나가서, 죽음이 하나님과 원수지 그것을 그가 사용하는 도구가 아닌것과 아직도 그것이 멸망되지 않겠다는 것이 사실 입니다. 여기에 꼭 맞는 구절들이 더 있습니다:

히브리서 10:12 와 13

(12) 오직 그리스도(제사장)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13)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받들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지금은 우리주 예수님이 자기의 적이 반등상 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그들이 자기 아래 굴복하지 않은 것이 변합니다. 하지만 싸움에는 하나님이 가장 강력하고 가장 지혜롭게 싸우심으로 인하여 인간역사 전체를 따져보면 결국 그의 뜻으로 결실이 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날의 인간역사 “전체”는 누구든지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의 뜻을 행한 것들로 이루어 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승리 하시는 결국을 보면, 꼭 세계 체스 (서양 장기) 챔피언 밥비 휘설 (Bobby Fischer)과 지방 고등 체스 (서양 장기) 원장이 맞대어 경주하는 격과 같습니다. 비록 그가 보는 눈이 서투르므로 몇을 넘겨 쓰리지만 오히려 상대방이 승리하는 데 유익을 주게 됩니다. 서투른 선수가 자유 안에서 아무리 머리를 써도 능숙한 선수가 항상 더 좋은 계획이 있으므로 결국은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도 구태어 자기를 굽혀서 부정수좌까지 부러가면서 자기가 하시고자 하는 뜻을 이루실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 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지 않는다” 하는 소리를 처음 들었을 때는 깜짝 놀라고 무력한 기분을 느끼게 할찌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 이유가 “인생의 운명은 예정해 놓았다”라는 하나에 논리를, 하나님은 사랑과 능력과 재능의 자원이 풍부함으로 자기가 현재와 앞날에 대한 약속을 기꺼히 이루신다 하는 것 보다 더 의지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믿음 곧 “인생의 운명 은 예정해 놓았다”하는 믿음의 위험한 사실을 알아야 할 매우 중요한 점은 하나님의 지시에 각자가 자유 안에서 반응 할수 있는 선택권을 “앗아”잡니다.

보다시피,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방도는 단지 이것들 밖에 없습니다

(가) 하나님은 없고 당신의 조상은 도마뱀인 것은 우리가 “화한 동물”이기 때문이다. 좋은 운 있기를 바래요 (good luck)!

(나) 자신이 하나님이다. 좋은 운 있기를 바래요 (good luck)!

(다) 하나님이 있는데 그 하나님이 모든 일이 일어나게 하신다. 그가 우리를 도울수도 있고 우리를 해치기도 하시는데, 거기엔 언제 무슨 일을 어떻게 하실지 확실한 보장이 없다. 좋은 운 있기를 바래요 (good luck)!

(라) 하나님이 있고 그 분이 한때는 사람을 위해서 에덴동산을 지으신 분이며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믿으면 언젠가 그 에덴 동산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그날을 보장해 주신다. 그 때가 올때 까지는 하나님과 그의 아들이 자기의 (그리고 우리의)대적보다 훨씬 능력이 많으므로 우리를 위하여 대일같이 힘써 싸워 주신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므로 좋은 “운”(good “luck”)이 필요 없다.

이 (가나다라) 중에서 어떤것이 당신에게 유익합니까? 말씀을 올바르게 깨달으면 그 사실이 당신으로부터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하고, 마귀를 더 미워 하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 (곧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 베드로후서 1:3) 을 더욱 더 복종하고 싶게 합니다.

번역: 김영순,

편집: 김정숙

Where is God When Tragedy Strikes?

"Why did God allow this to happen?" This is often the question that runs through the minds of family and friends when tragedy occurs. To some, it sounds too hideous to say something like, "God killed your son," when a child is killed in a car accident. So they euphemistically say that God "allowed" the child to die such a death. But can a logical mind make any distinction between the two? Ours do not, and we doubt if yours does either. If God could have stopped it, but instead allowed it, He necessarily shared the responsibility for the tragedy.

Why not let God speak for Himself from the pages of His "God breathed" Word? By way of a number of godly men whom He inspired, He is the **One Author** of His cohesive written revelation to mankind about who He is, what kind of God He is, and exactly how He related to people, who were His idea in the first place. The Bible says that **Satan** is the one who now holds the power of death, that is, he is the ultimate cause of death. This is either directly, via evil spirit intervention, such as a spirit of murder causing one person to murder another, or indirectly, via one of the countless diseases he has introduced into the world, or by destructive weather, or by a myriad of "accident."

Hebrews 2:14

Since the children have flesh and blood, he too shared in their humanity so that by his death he might destroy **him who holds the power of death—that is, the devil.**

Suppose you are sitting in a restaurant visiting with two friends, Billy and Joe. Bill sees a guy with a lead pipe in his hand sneaking up behind you. He turns to Joe and asks, "How's your family?" When you wake up, don't you think you will blame Bill almost as much as you blame the guy who hit you with the pipe? Who can truly love a God who causes suffering, or one who could stop it, but just decides to "allow" it to happen?

In the beginning, God decided to give both **angels** and man genuine free will. God is love (1 John 4:16), and true love required giving the other party freedom not to reciprocate *love*. Thus, God "allowed" or "permitted" the possibility of evil in order to make possible an unforced response of genuine goodness and love. If something contrary to His will happens, it is because God *cannot at that moment stop it* without going against His own nature. How could that be? We believe there are three very good reasons:

First, because although He is the most powerful One in the spiritual war currently raging between good and evil, His righteous nature requires Him to act justly even toward His formidable foe, the Devil. **Second**, He cannot usurp anyone's personal freedom of will.

Third, His justice requires Him to allow people to experience the consequences of their disobedience. [For further study read "Is God in Control?"]

To say that God cannot always stop evil flies in the face of many Christians' fatalistic concept of "the sovereignty of God," [1] a phrase, by the way, not found in Scripture. To most Christians, this means that God is ruling over everything that happens, and is thus responsible for it all. Most Christians have also been taught that God is "omnipotent," which according to Webster's actually means "all powerful." [2] Obviously God does not have *all* power, because Satan also has plenty. We believe that most Christians use the term "omnipotent" to mean that God has the *most* power and therefore can do whatever He wants. Although we certainly believe that God is the most powerful, His word shows that He cannot always do whatever He wants whenever He wants to. Clearly, He has limited Himself in His Word as to what He will and will not do.

Despite how much we may love to sing the versed of "Joy To The World" at Christmas time, a quick glance at any newspaper or TV news program blatantly shows that Jesus is not ruling on the earth, because the place is an absolute *mess*. Paradise is definitely lost. More definitively, there are a number of Scripture verses that make it plain that the world is not yet subject to the rule of the Lord. [3] For example:

1Corinthians 15:24-26

(24) Then the end will come, when he hands over the kingdom to God the Father after he has destroyed all dominion, authority and power.

(25) For he must reign until he has put all his enemies under his feet.

(26) The last enemy to be destroyed is death.

It is obvious from the above verses that there is some "dominion," some "authority," and some "power" that is not yet subject to the Lord. Furthermore, it is obvious that death is an enemy of God, not a tool He uses, and that it is not yet destroyed. Here are more pertinent verses:

Hebrews 10:12 and 13

(12) But when this priest [Jesus Christ] had offered for all time one sacrifice for sins, he sat down at the **right hand of God**.

(13) Since that time he waits for his enemies to be made his footstool.

Because the Lord Jesus is now waiting for his enemies to become his footstool, it is obvious that they are not yet under his subjection. But God *is* the most powerful and most wise one in the fight, and that means that human history as a whole will be resolved according to his will. The "whole" will be made up of the parts of human

history-individuals—who chose to believe God’s Word and do His will.

In regard to God’s eventual victory, consider the analogy of a chess match between former World Chess Champion Bobby Fischer and the president of a highschool chess club. Although the latter might capture a few of his opponent’s pieces and perhaps, to an untrained eye, even appear to gain the upper hand at some point, the outcome is never in doubt. No matter what the lesser player may do by the freedom of his will, the master player always has a superior strategy that will result in ultimate victory. Likewise, God need not stoop to manipulating His opponent in order to achieve His goals.

Hearing that **God is not controlling everything** that happens may at first cause some Christians great consternation, and even feelings of helplessness. Perhaps this is because they have actually trusted more in fatalistic predeterminism than in the love, power, ability, **resourcefulness**, and willingness of God to keep His promises regarding the present and the future. Also, this truth “ups the ante” in regard to the importance of one’s personal choices in response to God’s directives.

As we see it, here are the only alternatives:

(A) there is no God, your great-grandfather was a lizard and life is a “crapshoot.” Good luck!

(B) You are God. Good luck!

(C) There is a God who determines everything that happens. He is able and willing to both help you and hurt you, and there are no guarantees which He will do, or when He will do it. Good luck!

(D) There is a God who once made a Paradise for man and who has guaranteed for those who believe His Word that it will one day again be so. In the meantime, He and His Son are far more powerful than their (and your) enemy, and they are doing their absolute best for you each day. You have God’s Word on it. You don’t need “luck.”

Which sounds best to you? When properly understood, this truth will for you result in greater love for God, Greater hatred for the Devil, and greater desire to obey God’s wonderful Word, which contains “everything we need for life and godliness” (2 pet. 1:3).